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 참교육 소식

2014

2월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



2014년 2월 통합 258호

발행인 : 편국자 / 주소 : 부산진구 중앙대로 918-1 (양정1동 352-2, 3층) / TEL | 051) 556-1799 / FAX | 051) 556-1790 / hakbumo1@empas.com

# 참교육 소식

창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 표지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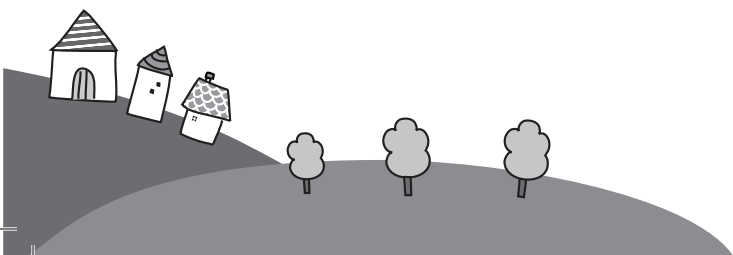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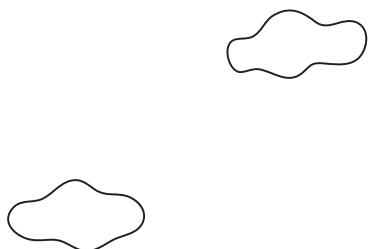
누구나 다 성장한다.  
그러나 모두 다 다르게 성장한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모두 다 잊는다.  
어른들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란다.  
모두 다 다르므로 감정이 같을 수 없고  
같은 시대를 살지만 같은 생각을 할 수 없다.  
이 <머저리 클럽>에 나오는 악동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슬그머니 추억에 젖는다.  
성장 소설을 이렇게 때 묻은 어른이 되어서 읽고 감동한다.  
이 표지는 최인호 장편소설 <머저리클럽> 표지그림을 따라 그렸다.  
악동들의 표정이 범상치가 않다.

매월, 표지 그림과 이야기를 실어주시는 편국자 지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

## CONTENTS

- 여는 글 p3
- 기획글 | 학교혁신을 위해서 p4
- 회원탐방 | 이수진 회원을 만나다 p9
- 어린이글 p12
- 대학생글 p14
- 시 이야기 | 온돌방 p15
- 김진아의 지역센터이야기 p16
- N의 교단일기 p18
- 신광호의 영화읽기 p22
- 공문 p27
- 논평 p28
- 학부모 알림란 p31
- 이달의 지역언론 속의 교육기사 p32
- 활동사진 p37
- 1월 회비 보고서 p39



아내랑 선물을 사러 가는 동안에도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35년만에 만나뵙게되는 선생님 왜 그토록 찾지 못했는지.  
운동화를 한 켤레 사고 지갑과 벨트를 또 삽니다.  
제법 큰돈이 들지만 저의 기뻐하는 모습을 아내 또한 즐기는 듯합니다.

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죄다 무서운 분들이라서 중학교때랑 행동이 달라야한다는 얘기들을 익히들었던터. 1학년 담임은 어떤분이 될까 죄다 두려움반 호기심반으로 가슴을 두근거릴 때, 키가 190cm는 뽕직한, 안경에 마른 체구의 얼굴이 뽀얀 샘이 들어오십니다.

백묵으로 칠판에다는 “조정기”라고 쓰시고는

“너희들 친구나 선배들 중에 x x고나 o o고 나온 애들 있으면, 나를 한번 알아보도록.

나는 한 번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그리고 내가 시계를 한 번 풀면, 학교로 앰블란스가 온다. 앞으로 일 년 간은 너희들은 ‘이젠 죽었습니다’ 하고 생활한다. 알았나?” “예!”

“나는 너희들한테 공부를 잘하라고 강요는 안한다. 다만 지각이나 결석을 하면 그때는 용서 못한다. 이유불문이다.” “예!”

저 흉악무도한 샘과 일년을 지내야 한다는 소름끼치는 생각은 채 한 주가 지나지 않아 풀렸습니다. 그 시절 샘들은 모두 학생들에게 반말을 쓰는 게 자연스러울 때, 유독 올 샘은 저희들에게 존대로 해주셨고 단 한 번도 큰소리로 화를 내시거나, 폭력을 행사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1학년 2달을 지나면서 저는 실업계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인문계로의 전학이 아님 자퇴를 할까 고민했습니다.

“샘 저, 자퇴 할랍니다.” “왜 무슨 이유로 자퇴할려하는데?”

“우리 학교는 선생님 수준이 낮아서 배울게 없습디. 나는 대학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대학을 못가겠습디. 자퇴해서 검정고시 준비해서 대학 갈라꼬예”

“그래, 어떤 샘이 수준이 낮드노?” “A샘은 이래서 B샘은 이래서 C샘은 또 이래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주절주절 해도, 몇 날을 저를 데리고 학교 뒷산에 앉아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학교는 학문을 가르친다고 해도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서로가 배워가는 게 70%, 그리고 오고가면서 배우는게 20%, 실지로 학문을 배우는건 채 10%가 안된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네가 언제든지 대학을 가고플때 가면 되지만 중간에 자퇴를 하면 대학 가기는 더 어렵다. 나도 학교 다닐때 썩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였었다. 고등학교 3년동안 책 읽는 재미로 살았지. 고등학교 때 소설책만 한 2천권은 읽었을 거야. 그래서 자네도 전공이 싫으면, 책으로 3년 학교생활에 재미를 붙여 보면 어떨까?”

그렇게 졸업을 하곤 선생님을 뵙고 싶은 생각만 하던 차, 동기모임에 모셨습니다

“샘 그때 자퇴한다고 할 때, ‘브니엘이라도 전학을 보내 주시지않고예, 왜 그때 붙잡았어예? 브니엘이라도 가서 대학을 갔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하고 선생님 속을 상하게 했네요”

“난 자네가 꼭 큰 사람이 될 거라 믿었고, 그런 제자를 가지고 싶었대네. 왜, 내 생각이 틀렸는가?”

난 끝끝내 선생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샘, 여든이 다 되어 가는데 올 스승의 날에는 다시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 학교 혁신을 위해서

정 광 필 (이우학교 전 교장)

크게 보면 제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학교 혁신의 비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나 하고요. 두 번 째로는 혁신의 주체 문제, 그리고 이제사 돌아보니 반성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우학교의 경험을 포함해서 제가 몇 년 사이에 혁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교들을 만났던 편이었는데 그런 경험에서 나온 사례들을 결합시켜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 1. 학교 혁신의 비전은 어떻게?

### 1) 이우는 이우 스타일로 : 공교육 혁신의 모델 만들기

우선, 이우학교 얘기로 시작하죠. 저희가 2003년에 개교했는데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흔히들 대안 학교로 얘기했지만, 저희가 대안학교로 택한 이유는 학교를 바꾸는 하나의 모델(공교육 개혁의 모델)을 만들고 싶었고, 거기에 적합한 형식을 찾아보니까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나 여러 재량이 제일 많은 부분이 특성화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흔히 말하는 정규 대안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식을 하나의 방편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이기도 하고 사립학교이기도 하고, 초기 혁신 학교이기도 했지요. 여러 가지 성격이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의 정체성을 두고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학교 설립 과정에서의 가장 큰 혼란은, 초기에 저희가 2003년 개교하기 전에 6, 7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당시에 풀무학교나 간디학교나 여러 유형의 학교가 이미 있었고, 그런 부분으로부터 시사받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고민했던 입지는 전혀 달랐지요. 준비를 같이 했던 구성원 내에서는 그런 점에서의 혼란이 있었고, 초기에 저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풀무학교는 풀무학교 방식으로 가야 되고, 이우학교는 이우학교만의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부딪힌 문제는 2003년 개교 이후 2005년 2006년을 거치면서 나타난 문제인데, 본격적으로 그 당시에 공영형 혁신학교나 등등 해서 학교의 새로운 공교육 개혁 모델들을 제도화하는 문제, 결합하는 과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시안도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었는데, 대안학교로서의 지향과 달리 내적인 축적도 없이 여러 외부 일에 결합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격렬한 내적인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내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공교육 개혁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기존의 공립학교들과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지향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데에 한 1~2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이우가 내부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지금쯤 고사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립의 학교혁신 모델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우는 이제 다음 단계의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고 보아야 합니다.

학교의 비전은 이렇듯 그 구체적인 학교의 조건과 문제의식이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학교 혁신이란 것이 정형화된 틀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개의 학교가 있으면 100개의 유형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각각은 자신의 문제의식과 조건에 맞추어서 가야 합니다.

## 2) 70%의 타협이 중요하다 : 100%를 이루려다 되는 일이 없다.

학교 혁신의 비전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다루려 합니다. 특히 학교 혁신 내지는 교육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나오는 이 주체들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자기 확신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확신과 이견이 있을 때, 대개는 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쟁점이 생기면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제는 지금 학교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잠정적인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문제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고, 주변의 학교를 봐도 그렇고, 그렇게 100%를 찾아가는 학교는 계속 그것을 찾지만 하고 분란만 있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70% 정도에서 타협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학교 혁신을, 특히, 단위 학교 차원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때늦은 교훈이기도 한데요. 초기 3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주변에 시끄러운 학교들이 많습니다. 혁신학교조차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다못해 요즘에 유행하는 배움의 공동체냐, 프레네 학교냐부터 시작해서 복잡계니 여러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를 빨리 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서 몇 년 해보고 나면 그것이 그나마 70%는 아니더라도 50~60%는 진도가 나가는데 100%를 하려고 쫓아가다가 늘 20~30%도 안 되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시는 그런 것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드는 우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30%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에도 융통성을 주고, 서로 다른 견해들을 모아내는 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30%는 양보한다는 마음 가짐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결과적으로는 견해만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모을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비판적인 제기를 해보면, 우리 교육이 처해있던 지난 역사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몇 십년 진전 없이 참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한 방법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지조를 지키고 신조를 견지하면서 소수파로서 전투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맥락은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단위 학교 차원에서의 변화를 만



들어내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신조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관되게 지조 있는 모습으로서의 선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좌절과 타협과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긴 과정을 거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일꾼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육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방향 없이 타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요. 문제는 분명한 학교 혁신의 비전을 긴 호흡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근래의 혁신학교들의 경험들이 2~3년 쌓여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산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 3) 한 3년은 꾸준히 해야 조금 변한다

그 다음에 매년 교육 계획도 세우고 또 뭔가를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한 3년은 밀고 가야 그나마 조금 바뀌는 것이 학교인 것 같습니다. 학급에서야 당장 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가 바뀌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제가 70%의 타협 얘기도 했지만 그런 것을 그래도 합의 했으면 한 3년은 해보고 평가해서 수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조금씩 수시로 이랬다저랬다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 (1) 2003 : 교과서 벗어나기. 용감한 출발.

이우 경우도 돌아보면 2003년에 개교해서 처음에는 기존의 오랜 학교의 관행들을 깨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교과서를 전혀 못 쓰게 하고, 모든 교재를 직접 만들게 한다거나 선생님들 관계도 기존의 방식과 바꾸기 위해 인적 구성도 완전히 바꾸는 등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 (2) 2006 : 체계화, 배움의 공동체.

3년을 그렇게 하다가 사실 그것조차도 한계에 부딪히면서 2006년도부터는 저희가 수업을 중심으로 배움의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했다가 또 기존의 학교의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장치들을 결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 여러 변화들을 주게 됐습니다.

#### (3) 2009 : 좋은 체계도 3년이면 소용없다.

그래서 수업을 중심으로 엄청난 변화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3년 지나 2009년쯤 되니까 그것 자체가 타성화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뭔가 그럴 듯하게 보이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고 선생님들도 현재의 수준에서 만족하면서, 이것 자체가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깨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2009년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 보아 3년 주기로 큰 틀을 바꾸고 혁신을 시도했었던 것 같은데, 학교라는 시스템으로 봐도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6년이라고 그러지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학년 들어와서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의 모습까지 성장을 지켜보는 그런 호흡 속에서 뭔가 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2. 혁신의 주체를 분명히

그동안의 반성으로 이런 교훈들을 얻어 학교 혁신의 비전을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름대로 정리가 됐는데, 사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주체의 문제입니다. 요새는 참고할 만한 좋은 교육 계획서나 학교 경영 계획서 같은 것이 참 많고, 여러 버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전을 실현할 주체의 문제입니다. 저는 크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교장, 그리고 교장과 함께 할 핵심 그룹, 이 부분이 일차 주체이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나머지 분들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학교 혁신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좌우합니다,

### 1) 교장의 역할 : 학교의 비전에 기초한 조정자, 촉진자.

우선 교장 공모제도 있고, 요즘 여러 변화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립학교에서의 교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면 인사권, 재정, 그 다음에 중요한 결재 라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흔히들 학교를 바꾸려고 시도했던, 지난 몇 십 년 사이 얘기 중 가장 많은 얘기는 뭘 해보려다가 교장 때문에 못하겠다는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앞에 제가 했던 객관적인 교장의 조건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낳았지요. 그런데 거꾸로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교장 때문이라고 말하는 순간 부담이 없어서 안 해도 됩니다. 교장 탓이니까. 그런데 이게 다 그렇게 떠넘기면 끝나는 문제일까?

제가 교장 자격 연수를 꽤 오래 한 셈인데, 많은 얘기들을 하다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교장 입장에서 얘기해볼게요. 교장 선생님들 중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교장 선생님은 학교를 개편 치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고 싶고, 폼 나게 학교를 확 혁신하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동안 보고 배운 것이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대개는 한 30년쯤 되어야 교장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익숙해진 것들이 많고, 얹어매는 관계들이 많습니다. 이 틀을 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 관계들도 다 엄청나게 제약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면, 저는, 아까 소수와 얘기를 했는데, 소수와 입장에서 그룹으로, 무슨 분회 입장에서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그 학교를 바꾸려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회에서 아무리 잘해도 학교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분란만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교장, 교감파와 타 그룹 간의 싸움이 시작되어서, 가운데 끼어있는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소수로 물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는 교장선생님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돕는다는 것은 제가 아까 일꾼 얘기를 하면서 조금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 맞추어서, 좋아하는 취향에 조금은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성공한 여러 공립학교들이 요즘 꽤 많아졌습니다. 경기도, 서울 경우에는 구체적인 예를 들 수 있을 텐데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교장선생님이 교육의 주체로, 혁신의 주체로 나서지 않게 될 경우 갖게 될 한계가 너무 크다

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파에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 중요한 노력은 교장선생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다들 그래야 되는 것은 대개 압니다. 그런데 이게 겉과 속이 다르기 쉽죠. 진짜 속마음으로 같이 하려고 마음먹기가 진짜 힘들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요.

이 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선비가 이 시대의 교육 운동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기도 한데, 제 마음을 놓고 봐도 두 마음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늘 악한 마음과 착한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중요한 순간에 이 껍책을 잠재우고 착한 마음 쪽에 귀 기울여서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영 싸가지 없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날 때 이쪽이 확 튀어나옵니다.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늘 어렵지요. 대개는 학교 현장에서 부딪힌다고 할 때의 모습은 서로 이런 악한 쪽이 맞부딪칩니다. 이것을 말로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사람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바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애매하게 노력하는 정도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진짜 속을 내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요즘 젊은 교장선생님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뭘 해보려고 저에게 상의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분들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요새 서울의 혁신 학교에서 유행하던 것 중에, 2년 전에 나왔던 말이 교장의 권한을 N분의 1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교장을 교사의 대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구조로는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학교의 비전에 기초해서 학교의 각 주체들, 교사, 학부모, 학생, 이 모든 주체들을 조정하고 또 그런 관계들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조정자의 역할의 머물게 되면 그것은 소용이 없겠지요. 그것은 교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무 수준이 되기 십상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 처음 얘기 시작했던 비전에 기초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체로서 시작이 됩니다.

위의 글은, 1월 22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있었던 부산교육포럼 정책토론회, '부산형 혁신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발제문에서 발췌했습니다. 2회 걸쳐, 신도록 하겠습니다.





● ●

## 이수진 회원을 만나다



이번 달 회원 탐방의 주인공은 이수진 회원이다.

이수진 회원은 현재 가야에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인터뷰는 그녀가 근무하는 학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수진 회원의 인터뷰는 그녀의 오랜 지인인 지부장님과 이선애 회원이 함께 해 주었다.

세 사람은 학원연합회 모임에서 만나 여자이면서 엄마, 또 경영자로서 서로의 고충을 나누다가 좋은 친구가 되었고 그 우정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지부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 Q: 참학에 가입하신 지 꽤 되셨죠?

A: 편국자 지부장님의 권유로 2007년에 가입했어요. 학원 연합회에서 활동하면서 지부장님과 인연을 맺었는데, 친인니처럼 항상 잘 챙겨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늘 믿고 따랐었죠. 그런 지부장님이 권하시는 단체라 흔쾌히 가입했어요.

### Q: 참학 회원 분들 중에는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A: 비록 생활의 방편으로 학원을 시작했지만 공교육의 어떤 선생님들 보다 책임감을 갖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려고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다 보니 늘 바른 교육에 대해 고민을 해요.

사교육을 하고 있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챙기는 과정에서 참학을 알게 된 거고 그 취지와 진정성에 공감을 한 거죠.

### Q: 이 곳에서 오랫동안 학원을 하셨다는데 장수할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이라도?

A: 여기서 학원을 운영한 지 20년이 좀 넘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 학원을 다녔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찾아오기도 하고 조카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학원으로 보내주기도 해요.(웃음)

비결이 따로 있기보다는...그냥 매 순간을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학원에 오는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생각하고 대하려고 애썼어요.

다행히 그것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끔은 '그동안 내가 인심은 잃지 않았구나. 나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구나.'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와이프와 아이를 데리고 새해 인사를 왔더군요. 격세지감을 느끼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에 감사하고 일을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Q : 보람도 크시지만 일을 하시면서 힘들 때도 많으셨을 텐데..**

**A :** 요즘 좀 힘들어요.(웃음) 올해는 책임감을 좀 내려놓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부쩍 들어서... 이런 생각은 제가 일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저희 학원에 제가 다섯 살 때부터 가르쳐서 올해 대학입학 시험을 본 아이들이 있어요.

처음에 초등학생 위주로 학원을 운영하던 제가 중등부, 고등부를 차례대로 하게 된 데에는, 그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자 다른 학원으로 가지 않겠다면 원장님이 계속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커요. 제가 맡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심리적, 경제적 압박감에도 지금까지 그 아이들을 이끌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 학년 아이들이 올해도 고등부 수업을 해달라고 하네요. 계속 하자니 제 몸이 안 따라 주고 안하자니 아이들이 눈에 밝히고...

(이수진 회원의 말에 두 분의 전직 원장님들이 하지 말라며 극구 말리신다. ㅎㅎ)

**Q : 사교육 현장에서 느끼시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하나만 짚어 주세요.**

**A :** 아이들에게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죠.

저는 학원이 뛰어난 아이들을 이끌어 주면서도 공교육이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과 미처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공부 양을 강요하고 아이의 능력에 상관없이 학원에 지나친 선행을 요구해요. 한마디로 경쟁에만 급급해 지금 안 해도 되는 것을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시켜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학원에만 맡겨 두고 집에서는 아이의 교육에 진심으로 성의를 보이지 않죠.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부모님들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불려도 대답도 안하신다,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 등의 말들을 해요. 공부 양이나 성적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에도 관심을 보여주는 학부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Q : 자녀 분 얘기를 듣고 싶어요.**

**A :**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딸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플루트를 했는데 본인이 음악을 전공해서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용돈 달라

는 소리를 한번 안하는 속 깊은 딸이에요.

**Q : 따님을 키우면서 특별히 강조한 교육 철학이 있으신지요?**

**A :** 저는 아이에게 늘 타인을 배려하라고 가르쳤어요.

내가 진심을 다하면 누군가가 언젠가는 알아준다, 타인에게 나쁘게 대하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며 먼저 양보하고 타인을 돌아보라고 했죠.

제가 너무 배려를 강조했는지...아이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서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장애물로 달려가 그 입구를 다른 아이들이 지나가기 좋게 젖혀주고 있더군요. 그래서 운동장이 웃음바다가 되고...지금도 자신보다 남을 더 배려하다보니 때로는 손해도 보고 상처도 받는 것이 보여요. 엄마로서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그 배려가 결국은 딸아이에게 좋은 기운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Q : 참학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A :** 그동안 제 일이 바빠 참학 활동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소식지가 오면 체험활동 글은 꼭 찾아보곤 했어요. 제가 일을 하니까 체험활동을 가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엄마들이 부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참학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글 : 신지원)



# 어린이 글

## 졸업과 입학 앞두고

이 선 영 (안락초 6학년)

일주일 후면 졸업이다. 실감은 나지 않지만 졸업식 날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다.

6년 동안 있었던 일을 훌훌 털어 버리고, 새로운 걸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날 것 같기도 하다.

6학년 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머리 모습도 바뀌고, 안경도 쓰게 되고, 친구도 바뀌고, 생각도 바뀐 중요한 시기였다. 바뀐 좋은 것들을 새로운 시작에 그대로 데려와, 좀 더 발전시키고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된다면, 제일 좋은 것 같다. 사람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니 말이다.

‘초등학교 졸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중학교 입학’이라는 새로운 시작에 좀 더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이란 단어보다 ‘시작’이라는 단어가 활기차고, 신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훌훌 털고, 새로운 시작에 기뻐하고 즐겁게 지내야겠다.

센터에서 일하시는 김진아님 편으로 따끈따끈하게 전송된 글입니다.  
중학생으로 거듭나는 초등 6학년의 희망이 몽글몽글 피어나서 실어 봅니다.

## 물음표

조 현 준 (수영초 5학년)

산책 나왔다가 말아버린  
검은 지렁이 같기도 하고

백화점 입구에 달린  
등근 손잡이 같기도 하고

낱시하다가 바늘에 매달린  
커다란 월척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들고 다니던  
기다란 지팡이 같기도 하고

동물원에서 놀고 있는  
새하얀 백조 같기도 하고

맛있게 먹고 남은  
짧은 스파게티 같기도 하고...

현준군이 4학년 때 쓴 시입니다.  
새부산 시인협회 조성범 사무국장님께  
서 시를 보신 소감과 평가를 해주셨습니  
다. 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굳이 평하라  
면...

“사물을 보는 눈이 남다른니다. 가진 지  
식만으로 글을 쓰는 사람과 시로 표현하  
는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관찰에서 통찰로 바로 보기에서 뒤집어  
보기를 하면서 항상 의문을 가지는 것입  
니다.

이런 면에서 조현준 군의 관찰력은 대단  
한 힘을 지녔다고 봅니다.

조금 아쉽다면, 각 연마다, ‘..같기도 하  
고’ 라는 화자의 느낌만 자꾸 반복된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에게는 무  
리한 요구인 줄 잘 알지만, 물음표의 본  
질을 사물에게서 구해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욕심이 납니다. 왜, 물음  
표 모양을 하고있는지 까지... 앞으로 분  
명 그러한 통찰력을 갖출 것으로 봅니다.  
넓은 시안을 지닌 미래의 작가를 미리 만  
나 기쁩니다. 훌륭한 작품입니다.”



##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부산대학교 권수민

13학번 새내기로 입학한지도 어언 1년이 다 되어간다. 마냥 이쁨만 받고 매일매일이 즐거울 것만 같았던 새내기 대학생으로서의 1년도 끝이 난 것이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엔 주어진 시간에 정해진 공부만 하는 것이 지겨워 대학생이 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곤 했는데 막상 대학생이 되어나니 기대만큼 그리 낭만적이지도 재밌지도 않은 것 같다.

만나면 장난치던 친구들과의 수다가 이젠 스펙, 외모, 취업이야기로 바뀌었다.

내 꿈과 목표에 대한 의지도 굳건했지만 이 친구, 저 친구 그리고 베스트셀러라는 자기계발서 내용에 휘둘려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했고 내 능력을 넘어서는 만큼의 많은 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 계획한 성과를 다 이루지 못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다. 친구들이 자격증을 준비하면 내가 행여나 뒤처질까 조바심이 났고 토익을 공부하면 나도 해야 할 것 같아 토익공부도 일찍이 시작했다. 또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배낭여행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알바와 공부, 내 청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어영부영 하기도하고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일상에 얽매어 있는 내가 괜히 우울해보이고 무료해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이것저것 손만 담그고 발만 동동 구르며 벌써 대학생살의 1/4이 흘렀다.

이렇게 짧은 1년을 보내고 난 뒤에 내가 깨달은 바는 고등학교를 벗어남과 동시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위엔 항상 유혹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슷타니파타 - 중에서

올해 입학하는 내 동생 같은 14학번 새내기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흔들리지 말라고, 대학을 들어서면서 다짐한 그 목표와 열정을 흔들리지 말고 밀고 나가길 바란다. 건투를 빈다! 나에게도 후배들에게도♣

권수민님은 이번에 우리 참학 신입회원 강정화님의 딸입니다.

참 부지런하고 긍정적이고 매사에 야무진 엄마처럼 수민양도 대학생활을 야무지게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앞날엔 영광이! 흔들리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잘가서 더 큰 꿈 만들어 내리라 확신합니다.♣



## 온돌방

조 향 미

할머니는 겨울이면 무를 썰어 말리셨다.  
해 좋을 땐 마당에 마루에 소쿠리 가득  
곶은날엔 방 안 가득 무 향내가 났다  
우리도 따순 데를 골라 호박씨를 늘어놓았다  
실경엔 주렁주렁 메주 뜨는 냄새 쿵쿵 하고  
윗목에선 콩나물이 쑥쑥 자라고  
아랫목 술독엔 향기로운 술이 익어가고 있었다  
설을 앞두고 어머니는 조청에 머무린  
쌀 콩 깨강정을 한방 가득 펼쳤다

문풍지엔 바람 뽕뽕 불고 문고리는 짹짹 열고  
아궁이엔 지긋한 장작불  
등이 뜨거워 자반처럼 이리저리 몸을 뒤집으며  
우리는 노릇노릇 토실토실 익어갔다  
그런 온돌방에서 여물게 자란 아이들은  
어느 먼 날 장마처럼 젖은 생을 만나도  
아침 나팔꽃처럼 금새 활짝 피어나곤 한다

아, 그 온돌방에서  
세월을 잊고 익어가던 메주가 되었으면  
한세상 취케 만들 독한 밀주가 되었으면  
아니 아니 그보다  
품어주고 키워주고 익혀주지 않는 것 없던  
향긋하고 달금하고 쿵쿵하고 뜨겁던 온돌방이었으면

윤석중 선생님의 “까치설날” 동요도  
오랜만에 함께 읽어 봅니다

까치 까치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들고  
새로 사 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랑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 저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호사하시고  
우리들의 절받기 좋아하셔요.

우리집 뒤뜰에는 널을 놓고서  
상 들고고 잣 까고 호두 까면  
언니하고 정답게 널을 뛰고  
나는 나는 좋아요 참말 좋아요.

무서웠던 아버지 순해지시고  
우지 우지 내 동생 울지 않아요.  
이 집 저 집 윗놀이 널뛰는 소리  
나는 나는 설날이 참말 좋아요. ♪~



## 1.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보수동 책방 골목 입구에 들어서면 잘 정돈된 느낌이 드는 J노인복지관이 있다. 복지관 입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엘리베이터 앞을 잠시 기다리보면 삼삼오오 밝은 모습의 어르신들이 몰려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J노인 복지관 노인 프로그램은 다양함과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기로 소문이 나있다.

나는 1월부터 중구노인복지관 내 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 17분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수업을 하고 있다. 미술심리치료 교수님의 권유로 시작한 노인 집단 미술치료.

17명의 어르신 대부분이 중.경증의 치매를 앓고 계시다는 말에 처음에는 미술치료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도 없지 않았고, 무엇보다 난 지금까지 아동들만 상대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노인, 더군다나 주간보호센터 담당 사회복지사도 미술치료 보다 언어치료, 또는 놀이치료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몹시도 조심스럽게 첫 수업을 준비하였다.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복지관 3층, 햇살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집단치료실에 등글게 모여 앉아계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는 전혀 치매를 앓고 계신다고 느끼지 못할 따뜻함과 편안함이 보였다.

일단 최대한 나는 밝은 표정과 청명한 목소리톤으로 인사를 하고 미술치료수업 들어가기 전 긴장완화와 몸풀기를 위해 가벼운 게임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위해 노력했다.

내 예상이 적중했다. 무작정 50여분 동안 “그림 그리세요.”라고하면 그 긴시간 동안 어르신들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그려야할지 막막하여 거부감부터 생겼을텐데 같이 호흡하고 박수치고 즐겁게 게임을 하다보니 마음의 긴장이 풀렸고 약간의 UP된 기분으로 “자화상을 그려보세요.”라고 말하니 뜻밖에 어르신들이 그림을 쓱쓱 잘 그리기 시작했다.

84세의 s어르신, 연신 이쁜(?) 선생이 우리랑 놀아주고 고맙다고 환한 웃음지으시며 “자화상을 그려 보세요”라는 말에 “나는 선생님 그릴래요.”라며 즐거워하셨다.

한분 한분 어르신들의 자화상에는 사연이 묻어있었고 본인이 그린 자화상을 앞에 두고 마음 나누기를 했다.

첫 수업이라 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 한분 한분 사연을 잘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그린 자화상 모습에 스쳐지나가는 사연을 느낄 수가 있었다. 50여분의 수업이 끝난후 어르신들의 그림을 챙겨 뒤돌아 나오는데 s 어르신 “이쁜 선생님, 또와~~~~.”

주간 보호센터 담당 사회복지사 미술치료에 대해 걱정하고 우려했던 점이 싸악 없어지고 반응이 놀랍다고, 앞으로 수업 잘 부탁 드린다고 하신다.^^ 이렇게 시작한 노인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의 미술치료수업.

한주 한주 나는 17명의 어르신들의 새롭고 놀라운 표현과 그들이 던져주는 따뜻한 미소로 가슴 한가득 정을 채워 돌아온다.

## 2. 마음을 나누는 미술 심리치료 수업

어르신 k

항상 그림속에는 미국에 있는 딸과 부인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있다.

망망한 바다속에 떠있는 배.

무작정 떠나 미국으로 가고싶다 하시며 눈물 글썽이신다.

오른쪽팔이 마비가 와서 왼팔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신다.

당신의 이름을 쓰시면서 항상 000 바보라고 쓰신다.

곁에있는 요양보호사님, “아버님, 바보는 바라볼 수록 보고싶은 사람이에요.”라고 그림에 쓰여진 글자에 이쁘게 덧붙여 써주었다.

“어르신, 왜 이렇게 바보라고 쓰셨나요??” 라고 물으니, 어르신 K,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왼팔로 마비된 오른팔을 가리키신다.

그순간 울컥하였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는 사이 강한 어조로 말했다.

“어르신, 몸이 장애인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마음이 장애인 것이 정말 바보예요. 어르신은 몸이 불편할 뿐이지 마음은 병들지 않았잖아요. 바보는 마음이 장애일때 쓰는 말입니다.”

어찌나 강하게 이야기 했던지, 어르신K 흠칫거리셨다.

그리고는 가만히 나를 쳐다보면서 아주 살짝 스치는 듯한 미소를 지으셨다,

나는 지금 어르신 k 의 그림 세 장을 나열해 놓고 보고 있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다 그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으리라.

말로써 주고받는 대화는 힘들지만 표정 그리고 작은 몸짓 하나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음을 알기에 다음번에는 조금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해보리라.

아주 살짝 스치고 지나갔지만 아니 어쩔 나만의 착각이었을 그 흐릿한 미소가 잊혀지지 않고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한 해 동안 김진아 회원님께서 지역센터이야기를 펼쳐 주시겠습니다.^^

##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가

- 내 막내 삼촌 태현이 아제

노영민 (신정고 교사)

산에 올랐다. 꿩이 운다. 며칠 전보다 조금 더 사람 가까이로 와서 운다. 봄이 오고 있다는, 아니 이미 왔다는 신호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아직 두터운 겨울 옷차림인데. 꿩은 봄이 벌써 가까이 왔음을, 이 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안다. 짹짹기를 위해 목소리를 가다듬고 몸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꿩아, 너 거도 학교가 있니? 어디서 그걸 배웠니?

나무의 잎눈, 꽃눈이 더 자랐다. 매화, 복숭아나무 주위는 이미 붉은 기운이 돌고 배나무, 사과나무 주위는 또 그 특유의 꽃빛깔로 환하다. 사람들은 매서운 추위가 걱정 되어서 아직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자연은 이미 봄 맞을 준비를 다 끝내가고 있는 것이다. 곧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깰 것이다. 나무야, 어떻게 그걸 배워 아니?

많이 궁금하다. 자연은 어디서, 어떻게 계절 변화의 낯새 알아채는 능력을 배우나? 누구에게 배우나? 새나 나무에게도 학교가 있나? 말로 배우나? 본데있게, 본데없게 컸다는 말이 있는데 자연에게도 그 말이 해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을 걷다가 문득 나보다 두 살 아래인 '내 막내 삼촌 태현이 아제'가 생각났다. '태현이 아제'는 어데서 '아제다움'을, '어른다움'과 '사람다움'을 배웠을까? 나보다 가방끈도 짧고 사귀는 사람들을 봐도 거의 노가다판인데 우리 아제는 어째 저리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하고, 진퇴가 확실한가? 오늘은 그 아제 얘기를 통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싶다. 학교 무용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와 학력 따위에 대한 맹목에 가까운 믿음을 성찰하는, 마을이 사람을 키운다는 것의 의미를 깨치는 작은 실마리라도 얻었으면 좋겠다.





방학이면 할매 할배와 팔 남매 막내로 할매 마흔여섯에 세상 빛을 본 태현이 아제가 있는 시골에 갔다. 그 시절 궁벽한 시골에 군것질꺼리가 어디 있나, 어쩌다 엿이나 박하사탕이 생기고 강정이나 박상을 튀겼을 때 마지막 남은 것은 언제나 내 차지였다. 서로 다룰 일이 생겼을 때 지는 쪽, 아니 져주는 쪽은 언제나 아제였다. 나이가 적어도 아제비 노릇 한다고, 천륜은 못 숙인다고 할매 할배, 여러 아제 아지매들이 놀림반 기특함반으로 말씀하시던 기억이 지금도 뚜렷하다. 아제는 그 어린 나이에 어디서 그 의젓함과 배려심을 배웠는가. 글 모르시는 나무장수였고 땅과는 일밖에 모르는 농투산이인 할배, 즉 태현이 아제의 늙은 아버지로부터 배웠다. 할배는 입으로 ‘관שמ보살’ 읊조리는 일밖에 세상 아는 일이라고는 별로 없어 보였는데 그 엄불공덕 탓인가. 나는 나이로 아제보다 두 살 위이고 오릿 길 시골학교를 아제는 다니는데 비해 도시의 발전된 학교를 나는 다니는데.

내가 대학을 다닐 때 태현이 아제는 농업학교를 나와 곧장 공수특전단을 지원해 군대에 5년간 다녀왔고, 제대 후 직장 생활을 잠깐 하다가 고물 장사를 했다. 그런 어느 날 서면에서 만나자는 아제의 전갈이 왔다. 만나서 소고기를 구워 술 한 잔을 나누는데 나는 아직도 ‘얼라’고 삼촌은 ‘대인’이 되어 있었다. 삼촌은 ‘나가 우리 집 장손이고 공부 한다고 육보는데 많이 먹어라’면서 고기를 구워 연신 내 앞에 놓아주었다. 집안 얘기, 세상 살이 얘기를 하는데 명색이 대학 공부를 한다는 놈이, 집안에 장손이라는 녀석이 예, 예 말고 보텔 말이 하나 없었다. 나이 어린 막내 삼촌은 참으로 시근이 멀겠다. 아제는 몸으로 얻은 삶의 지혜를 장조카에 대한 큰 기대로 버무려서 정성을 다해서 진지하게 말했다. 아제는 어디서 그것을 배웠는가. 가방끈과 책 읽는 거로는 조카에게 갖다 댈 수가 없고, 시쳇말로 노는 물이 다른데, 무엇이 이렇게 삼촌을 눈 밝게 만들었는가. 먹먹하기만 했던 그때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우연한 계기로 근자에 이런저런 아제의 살아온 얘기를 조금 더 들을 수 있었다. 아제는 그때 고물장사로 재미를 많이 봤다고 했다. 3년 만에 집을 마련할 만큼. “그런데 아제 장사를 와 그만 두었습니까?” “고물 장사 그기 희한하데. 보이는 거마다 다 돈으로 보이는 기라. 병도, 음료수 상자도, 맨홀 뚜껑도, 남의 집 대문도. 주인이 있어 보이는 물건이사 손을 안 대지마는 언제나 다 그래는 안 되는 기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이구 내이라다가 도둑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만 두었다 아이가.” 돈이 바로 눈앞에 얼른거리는데, 장사에 한참 재미가 붙었는데 그 일을 그만 두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제는 그때 아직 서른도 안되었던 혈기왕성한 사나이였다. 아 아제, 나의 존경하는 아제! 지금도 한 푼 돈의 썬에 바쁜 나는 얼마나 가소

로운 존재인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몸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괴리를 합리화하는 데나 쓰이는 나의 가방끈, 먹물에 비해 삼촌의 가방끈은 짧아서 오히려 순수하고 대담한 실천력을 갖게 했을까. 아제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다시 묻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삼촌의 염량체면은 어디서 왔는가.

아제의 배우자, 내 막내 숙모님을 만나게 된 얘기도 나로서는 놀라웠다. “내가 제대를 하면서 ‘이제 나라에 대한 충성은 끝났다. 인자부터는 효도다.’ 이렇게 생각했는 기라. 그래서 아가씨를 만나면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는가부터 물었다 아이가. 그럴 수 있다 하데. 그래서 너거 숙모하고 결혼했지.” 내가 다시 물었다. “삼촌은 우째 나이 서른도 되기 전에 충성이라든지 효도라든지 하는 그런 높은 삶의 기준, 가치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나이 육십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내 편한 것만 생각하는데.” 삼촌은 빙그레 웃기만 할 뿐 대답은 하지 않았는데, 대학 나와 명색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속으로 많이 부끄러웠다. 그러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람이 되는가, 어디서 사람의 도리를 배우는가, 어떻게 하여 참된 사람이 되는가 하는 의문은 더욱 깊어갔다.

이제 ‘내 막내 삼촌 태현이 아제’는 시골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고물장사를 그만둔 뒤 정화조 만드는 일을 하다가 청산하고 지금까지 이십여 년 인력 공급 일(용역)과 스스로 날품 파는 일을 해왔는데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만 두려는 이유는 이렇다. ‘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그만 두고 싶다. 남들이 아직 괜찮다 할 때 그만 두어야 안 되겠나. 나이를 먹으면 사람을 부리는 일이 싫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입질에 오르기도 싶다. 추하게 늙기 싫다. 그리고 나는 평생을 일하면서 산 사람인데 도시에서 나이 먹어 할 수 있는 일은 종이 박스 줍고 플라스틱, 양철 쪼가리 줍는 일밖에 없다. 그 일은 너무 비참한 일이다. 살살 몸 움직이면서 일하기에는 도시보다 농촌이 엄청 낫다. 아이들 다 키웠고 돈 안 쓰면 된다.’

이제 나이 쉰일곱, 나보다 두 살 어린 아제는 이렇듯 진퇴가 분명하고 삶의 지향하는 가치가 뚜렷하다. 이형기 시인의 ‘낙화(落花)’ 한 구절이 생각난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삼촌의 늙은 어매, 우리 할매가 자주 하셨던 말씀도 떠오른다. “산 입에 거무줄(거미줄) 안 친다. 아(아이) 생기는 대로 다 낳아라. 문디(문둥이) 떼도 떼가 많으면 좋다.” 그랬지. 우리 할매는 학교 아니라도 마을이 사람을 더 잘 키우고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 우리 할매는 먹고 사는 일에 오늘 우



리들처럼 주눅 들고 두려움에 떨지 않으셨지. 당당하셨지. 입에 자긍심이니 자존감이니 하는 말 한 번도 올리  
지 않으셨지만 참으로 자존감 높게 삼촌을 키우셨지. ‘굵은 소나무가 선산 지킨다는 것’ 몸으로 확실하게 알  
고 계셨지. 무엇하고 있는가 나는? 학교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사람은 어떻게 사  
람이 되어가고,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권용욱 선생님의 이어 2월부터 노영민 선생님께서 한 해 동안 교단일기를 연재해 주시겠습니다.





## 1. 갑오년, 반복되는 역사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120년전, 1894년 갑오년 동학혁명을 갑오 농민전쟁이라고도 부른다. 농민들이 스스로 집강소를 설립하고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인됨을 천명했던 해이다. 그 당시 전봉준이 이끄는 군사들은 왕의 전령이 들고 온 밀지 아래 무릎 꿇었지만 김개남 장군의 군사들은 왕의 명령도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했다. 동학혁명의 진정성은 전봉준 장군이 아니라 그가 이끄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혁명군을 이끌면서, 왕의 통치가 아니라 농민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김개남장군의 군사들에게 있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일본 사학자들이 우리 민족의 혁명정신을 축소 왜곡시키려고 역사교과서에 전봉준을 강조하고 김개남의 이름은 거의 삭제하다시피 하였다. 그렇게 왜곡 축소된 역사관을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교과서에 담아 오늘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그 교과서보다 더 나쁜 교과서를 만들어 노골적으로 학생들에게 강제로 왜곡된 역사관을 심으려고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역사는 일직선으로 흘러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가지고 반복하는 것이 역사이다. 18년 전의 교과서 편수국 체제로 돌아가려고도 하지만 120년 전의 갑오년의 주권재민 쟁취를 위한 대규모 항거의 시간으로도 가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좌절시키는 상식의 힘은 갑오년 항거의 혁명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나는 그 정신이 동학의 향아설위(向我設位)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해월 최시형 선생이 제사지낼 때 신위를 벽을 향하게 (향벽설위)하지 않고 제사지내고 밥을 생산하는 주체 쪽으로 (향

아설위) 모심이 타당함을 역설하였다.

“수억 천만년 전과 짧게는 선천개벽 후 오만 년의 시간과 수수억 천만 삼라만상과 우주 무한 공간과 깊이 모를 수만 층의 여러 신령들이 다 지금 여기의 제사 상제인 나 안에 함께 살아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온갖 꿈과 소망과 가능성과 변화의 씨앗들이 지금 여기 나 안에 다 함께 서려 있음을 똑똑히 깨닫게 될 것이다. 향아설위라는 법은 오만 년동안 폐기할 수 없을 것이다.”

(향벽설위하는 동안 모든 생산물을 벽 쪽에 갖다 바치기만 하고 그것이 다시 제사지내는 상제 주체에게 돌아오지 않고 옆드려 절하는 동안 사제나 자본가 또는 지배 관료들에게만 배를 채우고 스스로 생산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된다.)

내가 나에게 빌고 내가 나에게 절을 함으로써 비록 제한된 범위, 낮은 차원에서나마 ‘지금 바로 여기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의 희망을 실현시키려 하였다. 바로 그 정성과 노력이 동학 혁명의 근본적 정신이 되었고,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우리들 심층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 2. 향아설위는 깨우침을 통한 스스로의 힐링이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는 행위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몸을 결박당한 채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동굴 벽면에 비춰진 그림자만을 보는 행위와 닮았다. 그 허상의 그림자를 진실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그림자를 형성하는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허상의 그림자에 매몰되어 스스로 숨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해버릴 수 가 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면 영화관 밖으로 나와야 한다. 암흑 속에 수동적으로 사물을 관찰하던 사람들은 영화관 밖에 나와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동굴 벽면에 있는 허상을 통해 무언가를 찾으려하면 그 동굴 속에는 답이 없다. 동굴 밖에 나와 동굴을 들여다 봐야한다. 자기가 보았던 그림자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를 동굴 밖에서 파악하는 과정, 이 과정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전환, 그리고 향벽설위에서 향아설위의 전환과 같은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제사 지낼 때뿐만 아니라 평소 일상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매번 새로운 변화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

국가와 자본은 개개인에게 배타적 이기주의의 욕망을 강조하고 정당화시킨다. 시장의 자유가 마치 민주주의의 전부인 것처럼 선전한다. 또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이 거룩하다, 국익을 위해 살인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미덕이고 도덕이다.’ 이렇게 선전하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흄스의 이론을 앞세워 마치 국가는, 국민의 자연권을 군주에게 이양한 사회계약으로 형성된 자율 공동체인양 의무교육으로 그걸 암기하게 하는데, 자율적 공동체와 국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율적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거룩하고 미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자율적 공동체라도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살인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살인을 정당화시키려는 것도 범죄이지만 불공정한 대의제도로 유지되는 국가를 자율적 공동체라고 믿게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한다.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자는 얘기는 배타적 이기주의와 방향이 전혀 다르다. 나만이 하늘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가 다 하늘이다. 스스로에 대한 관점, ‘지금, 여기, 나’는 우주적 관점에서 자기에 대한 배려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배타적 이기주의는 욕망에서 출발해서 욕망으로 끝난다. 그러나 우주적 자기 배려는 깨우침에서 출발하고 의지로 존속된다. 사랑은 욕망이나 본능이 아니고 차이의 수용이고 깨우침을 향한 의지이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하여 배려하는 과정이 힐링이다. 힐링을 통한 새 가치관으로의 도약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 행복이 현대의 윤리학과 종교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총체적 과정은 '항아설위'로의 전환에서 출발하는데, 이럴 때 영화라는 매체는 항아설위를 통한 힐링 텍스트로서 매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 3. <네트워크> 매스 미디어를 욕하면서 거기에 의존하는 우매함

네트워크 "Network"란 작품은 시드니 루멧이 1976년 감독한 러닝타임 120분의 극영화이다. 시청률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도덕적 규범도 희생하는 텔레비전 산업의 부정과 폐해를 다룬 블랙 코미디인데, 윌리엄 홀덴, 페이 다나웨이, 로버트 듀발, 피터 핀치가 주연했고 남우주연상(피터 핀치), 여우주연상(페이 다나웨이), 각본상, 남우조연상, 오스카상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오래 전에 보고 최근에 다시 보았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테마들이 그야말로 유기적으로 팽팽하게 연결되어 저마다 빛을 발하고 있다. TV가 현대 매스미디어에서 차지하는 중심적 역할,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존재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만난 남녀의 이유 있는 불륜, 청춘을 바친 직장을 떠나는 직장인의 자아상실, 자본주의 체제 비판 운동조차 상업적으로 포섭하는 자본주의의 놀라운 생존력, 시청률이라는 정체불명의 숫자놀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비정한 인간관계 등 하나씩 따로 떼어 놓아도 장편영화 한편이 너끈히 나올 소재들이 이 영화 한편에 경이롭게 담겨있다.

대략의 줄거리 :

UBS의 인기 앵커였던 하워드빌은 시청률이 떨어지자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날 판이다. 오랜 직장동료이자 같은 방송국의 보도부장 맥스슈마허는 술김에 방송에서 자살한다고 말하면 시청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농을 건넨다. 다음날 뉴스에서 하워드는 정말 방송에서 자살하겠다고 선언해버린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저는 여기에서 권총 자살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률이 50%쯤으로 오르겠죠." 방송국이 발각 뒤집힌 가운데 센세이셔널리즘을 추구하는 다이애나크리스틴슨은 UBS를 합병한 CCA의 점령군 프랭크해킷을 설득해 하워드의 뉴스를 버라이어티쇼로 전환시켜버린다.

시청자에게 일종의 대리만족을 주는 효과덕분에 하워드빌쇼는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다. 저널리즘을 훼손하였다고 생각한 맥스는 회사를 때려치우고 다이애나는 더 힘을 얻어 극좌 테러리스트의 테러 장면을 시리즈로까지 제작한다.

버라이어티 쇼를 진행하는 사이 착란증에 빠진 하워드 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

"TV네트워크가 아랍계 거대자본에 넘어가게 되었다. 심각하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책도 신문도 읽지 않는 당신들에게 TV란 종교이자, 스승이자, 세상에 대해 들려주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모두 일어나서 분노하자.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들에 대해서 분노 하는 것이다.

창문을 열고 외쳐보자 'I'm as mad as hell, and I'm not going to take this anymore!'

하워드 빌은 카메라 바로 앞에서 절규하다가 발작을 일으켜 쓰러진다.

그러자 그 생방송을 보던 많은 시청자들은 제각기 창문쪽으로 달려가 창문을 열고 소리친다. “나도 화가 난다. 화가 나서 미치겠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다 거둬 치워!”

뉴스 앵커가 텔레비전을 거부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도발적으로 소리치니까 텔레비전을 거부하기는 커녕 tv에 나오는 앵커의 권유를 그대로 따라한다. 지독한 역설이다.

처음 볼 때는 나도 덩달아 마음속으로 소리쳐 외쳤다. 신이 났다. 그 당시 매스 미디어에 대해 강한 불신을 품고 있었으므로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어느날 이 뒷부분의 결말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보았다. 다시 보니까 나는 이 영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시청자의 우매함을 은근히 질타하는 감독의 의도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던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이 때) 섬만 바리보고 그 섬을 스치는 바람과 그 섬과 부딪치는 파도와 그 섬이 먹여 살리는 각종 생물들 그리고 그 섬을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다른 각도에서 쳐다 보고 있다는 것 포함하여 그 모두를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그 영화의 뒷부분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인데, 그걸 두 번째 볼 때야 겨우 깨칠 수 있었다.

좋은 영화는 힐링을 제공한다. 두 번이상 봐야지 힐링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책도 그러하다. 두 번 이상 읽을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해서 읽을 때 행복해진다.

예전에 천안함 침몰 당시 침몰 원인에 대하여 국방부가 앞서 발표했던 자료들이 잘못되었다고 번복하고 새롭게 다른 침몰 원인을 발표하는데 그 때마다 사람들은 엉터리 보도였다고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새로 발표된 보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각기 이러쿵 저러쿵 엉터리가 될 가능성이 엄청 높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니가 옳니 내가 옳니 서로 다투었다. 동굴 벽면에 나타난 그림자만 보고 형벽설위 하는 모습이 네트워크 영화 속의 우매한 시청자와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우매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힐링이 시작된다.

#### 4. 최근에 본 영화들 ;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 남쪽으로 튀어

이란 감독 아쉬가르 파르하디의 <씨민과 나데르의 별거> 그 전작 <어바웃 엘리> 그리고 최근작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 이들 영화는 이야기 자체도 흥미진진하지만 그걸 풀어 내는 연출이 너무나 탁월해서 누구든지 마법에 걸리듯이 이야기 속으로 쏙 빠져들게 된다.

파르하디는 '진실찾기' 미로게임을 계속 반전을 보여주며 영화의 긴장을 유지한다. 멜로 드라마도 아니고, 스릴러 장르도 아니다. 그만큼 파르하디 특유의 스타일이 강렬하게 전개된다. 선과 악이 서로 뒤바뀌는가 하면 진실과 허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한다.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는 부산영화제 당시 <지난날>이라는 제목(원제:the past)으로 상영했었다.

대략의 줄거리 :

각자 별거하던 부부 아미드와 마리. 아미드가 이혼 수속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리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됐을 때 마리의 아이들은 친엄마 마리보다 양아빠 아미드를 더 반긴다. 하지만 아미드와 헤어지고 나서 마리는 벌써 새

로운 남자를 만나 함께 살고 있다. 문제는 마리의 아이들이 그를 싫어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고 그의 전 부인은 지금 혼수상태다. 그녀를 혼수상태에 빠뜨린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숨겨온 비밀이 하나씩 밝혀진다.

파르하디 영화들 속의 공통점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점.

분명한 것은 거짓말을 해야 하는 순간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절박한 순간이라는 것.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에 화를 내면서 비난하지만 파르하디는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끝까지 캐묻는다. 그리고 그를 이해한다. 나는 파르하디가 ‘용서보다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용서한다는 종교적 행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이해’하는 것이다. 힐링도 ‘이해’가 더 필수적이다.

속 깊게 이해 잘하는 감독을 또 한 사람 들라하면 단연코 임순례 감독이다. 최근에 본 한국 영화 ‘남쪽으로 튀어’에서 김윤석의 캐릭터는 임순례 감독영화 등장인물치고는 지나치게 뻔뻔하고 반항적이었다. 임순례 감독 영화의 매력은 과장하지 않고 찬찬히 우리 주변의 나약하고 소심한 서민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는 데에 있다. 갈등과 다툼의 순간에도 유머를 잃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묘사들이 모두 생생하고 매우 리얼하다. 아나키스트 같은 품모는 김윤석에게는 제격이었지만 우리 현실에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은 아닌 듯 했다. 그래도 속이 후련해지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장면들이 여럿 있었다. 마음이 정화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힐링이 된다.

#### 여담 한 가지 :

최근 LA타임즈는 지난해 개봉한 영화 중 가장 과대평가 된 영화를 투표, 그 결과를 발표했다. 1위는 예상 외로 ‘영상 혁명’이라며 전 세계 호평을 받은 ‘그래비티’(감독 알폰소 쿠아론)가 차지했다. ‘그래비티’는 31.92% 지지율로 1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 뉴스에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야 말로 양극단이다. ‘말도 안 된다 얼마나 잘 만든 영화인데’ 하는 댓글과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제대로 그 실체가 밝혀지네’ 하는 댓글이 서로 경쟁하듯 뒤섞여 길게 이어졌는데, 이 영화가 이토록 살벌하게 호불호로 나뉘어질줄은 예측하지 못하였다. 수학적으로 정답이 따로 있다면 논쟁이 필요한데 호불호는 기호의 문제가 아닌가? 세상일에 수학적 정답이 따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도 어릴 때부터 사지 선다형 정답 고르기 시험문제에 올인하는 한국식 학교 교육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호불호 둘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어떤 점은 좋은데 어떤 점은 그냥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하는데 우리 제도권 교육에서 그런 훈련이 시행되지 않는다. 타자의 견해 또는 기호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 광 호 올림



##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수 신 김희정, 김세연 의원님

제 목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의견—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한다.

1. 의원님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논의를 하게 됨으로써 지난 2010년 일몰제 도입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기형적으로 왜곡될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을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3. 그런데 지난 1월 7일 있었던 공청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후퇴시키고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이 거론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3차례의 판결에 의해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선제는 주민 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의 산물로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야지 폐지할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4. 한편 교육의원 선거가 일몰제에 의해 폐지될 상황인데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라는 집행 기관이 있으면 이를 전문적 식견과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교육의원도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대 교육제도가 도입된 이래 교육 의원들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가 항상 있어 왔고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 그리고 유초중등 교직원이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자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대학 교수 등 일반인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교육자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6. 우리는 국회가 교육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끝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 요구를 정리하여 밝히는 바입니다.

- 교육감 주민직선제 정착과 교육경력 존속
- 교육의원제도 존속과 교육의원 피선거권 확대
- 현직 교직원의 피선거권 보장

2013년 1월 20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산지부

## 기자회견문

### 친일교육 옹호하는 비리온상 부성고를 규탄한다! 학생과 학부모 의견 무시하는 친일독재옹호 부성고는 각성하라!

#### 부성고가 전국 유일하게 친일독재미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

부성고가 전국 역사 교과서 채택 학교 중 유일하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 그 과정에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다. 지난해 12월 20일, 부성고는 역사담당 교사 2명과 윤리담당 교사 1명으로 이루어진 교과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지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 국회 보고를 위해 교육청에 지학사 교과서를 보고했고, 교과서 업체에 지학사 교과서를 주문했다. 교사들이 실제 매긴 점수는 지학사 1순위, 미래엔 2순위, 비상교육 3순위였다. 이후 다시 교과협의회를 개최하여 교학사 1순위, 지학사 2순위, 미래엔 3순위로 변경했다. 3순위에도 들지 못하는 교학사 교과서가 재협의 후 갑자기 1순위가 되고, 1월 27일 학교운영위원회는 전격적인 만장일치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 1월 28일, 교과서를 주문하고 보도자료 배포하여 사실을 알렸다. 이는 특별한 외압이 없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다.

발표의 요지이다. 한 마디로 쓰레기 교과서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위법과 공권력을 동원해 교과서검정제도를 완전 붕괴시킨 장본인이 바로 교육부이다.

#### 부성고의 채택 논리는 어처구니없다.

부성고는 교학사 교과서가 수정 후 내용이 보강되어 다시 채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교학사 교과서의 기본적인 친일독재미화 내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단순히 몇 개를 수정해서 교과서의 내용과 구조가 바뀌었다고 항변하는 학교장의 말은 어처구니없다.

#### 부성고는 학생을 위한 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이번 부성고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운영위원회는 2014년 3월까지 임기이다. 그리고 신교장 역시 2월말에 임기를 마친다. 지금까지 부성고는 한 학년에 인문반 3개, 특성화반 5개 반인 종합고 형태였다. 2014년부터 후기 일반고로 8학급의 학생을 모집한다. 한국사는 수능에서 필수이다. 현재 특성화 학급과 일반 학급이 혼재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들이 수능 시험도 치를 수 없



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교과서를 채택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자신의 자식들이 치러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에서 결정한 일이라면 이보다 더 후안무치한 일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편승해 학교장도 임기가 끝나는 마당에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지금 재학중인 학생도 친일독재옹호 학교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겠지만, 실제 한 국사를 배우고 수능을 치러야 하는 2014년 입학 학생에게는 크나 큰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다.

## 부성고가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를 채택한 것은 학교 재단과 관리자 측이 줄곧 사학 비리를 저질러 학생과 교사들을 괴롭혀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학교를 설립한 한석봉은 93년 공금을 횡령하고, 학생 저축금 4억원 횡령했다. 교사들을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동원했으며, 집안의 개인적인 일에 교사들을 동원하는 등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해오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어 구속된 경력이 있다. 1993년 신문 기사를 보면 얼마나 심한 비리였는지 알 수 있다. ‘93학년도 졸업식이 열린 부산시 남구 문현동 문현여상 교정에는 어느 졸업식장의 숙연함은 간데없고 1천2백여명의 어린 졸업생들의 애타는 호소만이 가득했다. 이날 졸업식은 학교 금고 잔고가 바닥나는 바람에 2억8천8백만원의 저축 환불금을 받지 못해 상급학교 진학은 물론 생계마저 막막하게 된 학생들, 그리고 이들의 학부모들이 학교 측의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선생님, 학부모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 사회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역겨운 고무와 본드냄새를 마다하지 않는 신발회사에서, 비린 내 나는 수산회사 작업 현장에서 대가로 받은 월급입니다” 특히 졸업생 1천2백명 중 신발, 수산 회사 등 산업체 근로자였던 야간부학생 2백50명은 온갖 고난 끝에 받은 졸업장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을 꿈꾸며 모아왔던 1인당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백 70만원의 돈을 받지 못해 울분의 눈물을 쏟아냈다.’

또한 비리로 점철된 학교설립자 한석봉씨를 2006년 2월 21일 교장으로 임명하려던 것을 교사, 학보모가 반대하여 2일 만에 물러나게 했다. 이후 재단에서는 2006년 4월 18일 교장자격증이 없는 최부야씨를 교장으로 임명하게 되었다. 이 같은 부당함에 부성정보고 전교사들과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학교장의 출근저지와 이사회에 이러한 부당성을 알렸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교장으로부터 형사, 민사 소송을 당하여 재단은 2007.4. 24 1명 파면, 6명 해임이라는 보복성 징계를 했다. 이런 학교가 부성고등학교이다. 대체로 사학비리는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수구적인 학교 경영에서 기인한다. 사학 비리를 덮으려 교사들을 퇴출시킨 것은 재단의 폭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런 식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번의 교과서 채택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비리사학이 이미 선정된 교과서를 다시 뒤집은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 이 학교의 관리자 또는 재단은 노골적으로 수구성을 드러내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옹호했다.

이 학교 학교장 출신인 부산시의회 최부야 의원은 2013년 6월 17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2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고교 역사 교과서에 대해 편향적이라고 했다. 그는 그 당시 사용되던 교과서를 편향적 민족·민중주의 사관(史觀)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보다는 좌익과 북한만 편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했다. 또한 좌파가 엮고 쓴 역사교과서 채택률이 중·고교에서 90%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가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때 학교운영위원회가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성고가 최초의 채택을 뒤집고 재채택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가 적극 개입한 것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그리고 부성고 측은 이번 채택과 관련하여 “교학사 교과서가 대한민국 체제와 정통성 유지, 산업화의 공과를 균형있게 바라봤고,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개발 등을 고루 다룬 점을 높이 평가해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제 옹호, 산업화 이면의 독재를 덮어두고 옹호하겠다는 발상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운운하며 교학사가 많은 지면을 할애한 이승만 독재를 지지하겠다는 표현으로 들린다.

**부산의 시민 사회 단체는 부성고의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채택 철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이다. 먼저 여론 활동으로**

- 학부와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화, 학교 홈페이지, 학교 방문 등을 통해 항의 활동할 것
- 교과서 부산 네트워크 소속 단체 명의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현수막을 부착한다.
- 친일독재옹호 교학사 교과서 채택과 부성고의 문제를 알리는 선전지를 배포하며 학교장 전형인 친 일독재 미화 부성고에 학생들을 보내지 않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그리고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전국네트워크와 연대해서 전국적인 항의 활동도 한다.

**학교를 압박하고 학생들에게 학교의 부당한 채택을 알리기 위해**

- 매일 학교 정문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고
- 매주 한차례 내실 있는 대중 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2014년 2월 3일

**친일 · 독재미화 ‘뉴라이트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



## 학부모알림란

### ◆ 초등 예비학부모 교실

2월 13일(목) AM 10시 30분 덕천동 햇살가득한 어린이집

2월 15일(토) PM 6시 30분 당감동 성지문화원

2월 21일(금) AM 11시 30분 만덕2동 꿈동산 어린이집

● 문의: T 556-1799 참학부산 사무실 / 편곡자 지부장님(010-5009-9191)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등 학부모 교실을 열지 못한 점 양해 드립니다.



### ◆ 부성고 교학사 교과서 철회 1인시위

● 일시 · 장소: 부성고 앞 2월10일(월)~ 18일(화) 등교시간 오전7시40분~8시20분

교과서 대책위의 단체들과 돌아가면서 시위합니다.

보수단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집회신고 없는 1인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켓은 참학 사무실에 있습니다.



## 이달의 지역 언론 속의 교육 기사

교총 · 전교조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한목소리

국회 정론관서 공동 기자회견...선거공영제 · 교호순번제 등 요구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선거제도 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교총 안양옥 회장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수호와 정상화를 위한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선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 요건에서 ‘교육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때 교육감 후보는 교육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교총과 전교조는 또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일물제가 적용돼 올해부터 사라지는 각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제도를 유지하고 교육의원 수는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대로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돈 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강화해 시행할 것도 촉구했다.

오는 31일까지 가동될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러닝메이트제와 임명제, 제한적 직선제 등은 사실상 채택이 어려울 전망이며, 기존 직선제를 고수하는 대신 투표용지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교총과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투표용지는 추첨을 통해 세로로 배열하는 현행 방식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균등하게 배열하는 ‘교호순번제’ 적용을 제안했다. 교호순번제란 후보자가 3명이면 이름 배열을 번갈아가며 달리 적어넣은 세 종류의 투표용지(갑-을병, 을병-갑, 병-갑-을)를 같은 수로 혼합해 배부하는 방식이다.

한편 양 단체는 유·초·중등 교원이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때 대학교원처럼 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주장도 펼쳤다. 양대 교육단체의 이 같은 요청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교육감 선거 판도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 / 윤정길기자 yjkes@kookje.co.kr / 2014-01-16

---

## [청소년기자 광장] 대안학교 학생은 ‘청소년’ 아닌가요?

▲ 지난 17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일권 부산시의회 교육의원 주최로 ‘부산 학교밖 청소년 교육 활동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것이 잘못인가요? 다같은 대한민국 청소년인데 왜 우리는 수업료는 물론, 급식비에 심지어 건강검진비까지 따로 다 내야 하나요? 차별 아닌가요?”

‘학교밖 청소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안학교 학생들은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장에서 공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체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교육 현실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온새미학교 중등과정 1학년 이민석 군은 “비인가 대안학교라서 모든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해서 값싼 재료로 만든 급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서 “부산이 교육선진 도시를 지향한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대안학교 급식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은 다른 대안학교 학생도 “인가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조차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7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부산시의회 이일권 교육의원 주최로 ‘부산 학교밖 청소년 교육 활동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비인가 대안교육을 중심으로’라는 부제가 붙은 까닭인지 부산지역 대안학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대거 몰렸다.

이 의원은 “부산에서만 3만 6천여 명이 학교밖 아이들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당수 광역자치체에서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부산과 대구, 경북, 전북은 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지적돼 아쉬움을 남겼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현행 교육법에 따른 수업료 면제 수혜 대상에서 대안학교가 제외된 것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온새미학교 이철호 교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 즉 교육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대안학교에 다니든, 홈스쿨링을 하든 모든 제도교육 밖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일보 청소년기자 / 김나현(온새미학교 2학년) / 2014-01-25

---



---

## ‘로또 교육감’ 사라진다…투표용지 순환배열형 교체

가로형 개선, 기호도 없애 - 기재 순서 따른 유불리 차단- 구·시·군 기초의원에도 도입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교육감 선거 투표 용지를 기존 ‘세로 열거형’에서 ‘가로 열거형’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또 투표 용지에 후보들의 기호 표기도 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교육감 선거 방식이 6·4지방선거 때부터 대폭 변경돼 지역에 따라 1, 2번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일명 ‘로또 교육감’선거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심사소위는 29일 교육감 선거와 관련, 투표용지를 현행 세로 열거형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재되는 가로 열거형으로 변경하고 순번을 배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구·시·군 기초의원 선거 구 단위별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도 순환배열 방식을 도입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순환배열방식은 투표용지에 모든 후보자가 가장 왼쪽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 기재 순서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구 300명의 선거구에 A, B, C후보 세 명이 출마했을 경우 각 후보가 가장 왼쪽에 기재되는 투표용지를 각 100장씩 인쇄해 기재 순서에 따른 선거 유불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여야는 당초 논의됐던 원형 투표 용지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정개특위위원인 새누리당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은 “원형 투표 용지 방식은 후보자수에 따라 한 후보자가 차지하는 칸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고, 이 때문에 고령층 유권자의 후보 확인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는 시도지사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교육감 임명제 도입 등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또 교육의원 선거제도 및 교육위원회 존속 여부에 대한 것도 계속 논의키로 했다.

▷교육의원 수 상향조정에 관한 사항 ▷교육의원 후보자 자격요건 확대 ▷교육감 출마시 교육경력 유지여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2014-01-29

---

## 김석준 교수, 부산 교육감 출마 “교육이 희망”

혁신학교 등 주요 정책 제시.. “진보 중도진영 통큰 단일화 만들겠다.”

김석준 부산대교수가 부산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교수는 27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출마회견을 통해 “교육과 정치, 그리고 부산을 가장 잘 아는 제가 부산교육을 바꿀 교육전문가라고 자부한다”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출마선언문에서 자신이 펼치고 싶은 교육 정책의 구상을 밝혔다. 대표 정책은 이른바 ‘부산형 혁신학교’를 통한 양질의 공교육 제공이다. 그는 “부산형 혁신학교를 도입해 최소 초등 20개, 중학교 10개를 추진하겠다”며 “정규수업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한 부산 동서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중학교 전 학년 의무급식, 고등학교 교과서 제공 등을 제시했다. 공교육 정상화와 맞춤형 교육, 방과후 학교 내실화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김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나 교권보호조례, 학부모조례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뜻도 전했다. 또 전자공개입찰 원칙을 강화하고 공사납품명세를 전면공개하는 것으로 “투명한 학교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비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책실현을 위한 예산 마련을 자신했다. 그는 “부산은 전국의 광역시 중에서 교육예산 지원 규모가 아주 작은 편”이라며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부산시와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강력히 설득하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진보진영과 중도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진보 진영 성향의 후보로 평가되는 김 교수는 “통큰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이라며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 추이를 보면서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자신했다.

김석준 교수는 부산고, 서울대 사회학과(학사·석사·박사)를 졸업하고 1983년부터 부산대 사범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2년과 2006년에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 현재는 부산생활협동조합 이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부산교육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한편 부산지역 교육감 선거에서는 임혜경 교육감과 황상주, 김길용, 최부야 교육의원, 하윤수 부산교대 총장, 김상용 전 부산교대 총장 등이 보수진영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김석준 교수와 박영관 전 민주공원 관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중도 계열로 분류되는 이일권 교육의원, 정홍섭 신라대 전 총장, 강대우 동아대 교수 등은 이미 후보 단일화의 틀에 합의한 상태로 이후 각 후보 진영의 단일화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마이뉴스 / 정민규 기자(hello21) / 2014-01-27

---

---

## 교육감 경력 부활 두고 '갈짓자 행보'

### 6·4 지방선거에서는 미적용 · · · 교육계 강력 반발

정치권이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부활을 두고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다. 이에 교육계가 강력 반발, 향후 진동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지방교육자치소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교육감 후보자 교육경력 요건을 3년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앞서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교육감선거 동시 시행)부터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이 폐지된다. 현재까지는 교육감 후보 자격으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교육계에서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폐지 반대를 주장해 왔으며 정개특위는 일차적으로 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즉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을 계속 유지토록 한 것.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결의안에 대해 오는 7월 재·보선 때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이러자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이하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한국교육의원 총회(회장 최홍이), 교장회,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6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교총 등은 "여야 간에 어렵사리 합의한 교육감 교육경력 3년 부활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 이번 선거에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이는 예견됐던 일로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이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막판에 개정안을 만들면서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총 등은 "우리 교육자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교육경력이 없는 인사가 교육감이 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라며 "늑장 졸속으로 개정안을 만든 국회를 엄중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이후 일어나는 비교육적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대학저널 /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 2014-02-06

## 활동 사진



▶ 설수익사업(유과 판매)140상자  
구입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수고로움에도 60상자를 판매  
해 주신 김정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월 8일~ 16일)



▶ 1월 16일 부산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부산시의회 대회의실 / 편국자 지부장님)



▶ 신입회원 만남의 날(1월17일)  
(참학 사무실/ 김경화, 김소영, 김채안, 정승호,  
조효정 회원, 이규남 부지부장님, 배종만 선생님  
참여하셨습니다.)



▶ 그리고 아이들^^



▶ 2014 교육희망본부 1차 전원회의  
(전교조 교육관/ 조효정 참석)

## 활동 사진

▶ 부산교육포럼 정책 토론회  
(부산시의회 중회의실 / 김정숙 전 정책실장님  
토론자로, 김석준 교수님 사회자로,  
김명숙 고문님, 김소영, 조효정 회원 참석)



▶ 영화 소모임  
(신광호님 덕 / 박선희, 김정숙, 편국자, 채승영, 권용욱, 남희선, 조정화, 신광호님 참여)



▶ 부성고교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 규탄집회와 기자회견  
(편국자 지부장님)



## 1월 회비를 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순금(2만), 강아련, 강재성, 강정아, 고내현, 고창민, 고혜경, 공외정, 곽선희, 곽차섭, 곽태순, 권서용, 권영순, 권인근, 김경선, 김경준, 김경화, 김경희(A), 김경희(B), 김계선, 김기영, 김동철, 김동희, 김무진, 김미경, 김법기, 김상현, 김석준, 김성미, 김성희, 김수영, 김수진, 김영미(A, 5천), 김영미(B), 김영숙, 김영훈(2만), 김영희(A), 김영희(B), 김옥순(2만), 김원재, 김은정, 김익수, 김재홍, 김정숙(2만), 김정애, 김정열(5천), 김정원, 김종만, 김종찬, 김종철(2만), 김지원, 김진아, 김차름, 김채안, 김춘미, 김평심, 김현봉, 김현준, 김형선, 김혜례, 김호정, 남광우, 남희선, 노귀전, 노기섭, 노영민, 노혜영, 노희정, 류봉심, 류정애, 맹일영, 문명숙, 문인숙, 문재경(5천), 문혜정, 민문식, 박경아, 박덕수, 박무준, 박미순, 박성미, 박유미, 박은숙, 박준건, 박희옥, 배문주, 배선임, 배종만, 백미영(5천), 백성희, 백점단, 부지환, 서경애, 서권석, 서석태, 서인석, 서정호, 석은경, 선석열(2만), 성인심, 손건태, 손재광, 송경희, 송명희, 송미경, 송미수, 송부희, 송승희, 송언경, 신광호(2만), 신수자, 신영희, 신용규, 신지원, 심미숙, 심성보, 안종기, 양윤자, 여진호, 오봉숙, 왕병구(2만), 우성만, 유동철, 유명희, 유은정, 윤내경(2만), 윤송태, 윤신옥, 윤연섭, 윤영근, 윤영이, 이경애, 이규남(2만), 이금숙(5천), 이남숙, 이내훈, 이병숙, 이선애, 이성하, 이수진, 이승중, 이영주(2만), 이은정, 이인경, 이일권, 이재홍, 이재희(5천), 이정인, 이정형, 이종명, 이진희, 이창호, 이행봉, 이혜숙, 이혜영, 이희주, 임석규, 임선희, 임영선, 임주연, 장동제, 장말선, 장미자(5천), 장선희(2만), 장순옥, 장유성, 장은숙, 장정인, 장지숙, 장현숙, 전순실, 정동주, 정동희, 정미경, 정수련, 정승호, 정영배, 정윤숙, 정재천, 정찬호, 제진희, 조금제, 조명숙(3만), 조병준, 조석현, 조원국, 조정화(2만), 조효정, 주우명, 주정현, 지영경(5천), 채승영(2만), 최경희(A), 최경희(B), 최미경, 최영순, 최은화, 최점순, 최정홍, 최종수, 최지선(2만), 최한, 편국자, 편유화, 하경옥, 함정화, 허운영, 홍동희, 홍정희, 황마리아, 황선애, 황은옥(2만)

### ■ 1월 결산 보고

수입	지출내역	지출금액	이월금
이월금 3,825,943	중앙 부담금	546,860	3,541,323
	사무실 운영비	333,760	
회비수입 2,280,000	소식지 발송비	120,000	
	소식지 인쇄비	420,000	
후원금 200,000	사무실 임대료	275,000	
	상근자 급여	800,000	
이자수입 0	지부장님 활동비	200,000	
	신입회원 활동비	49,000	
기타수입 0	CMS착오 회비 반납	20,000	
수입 합계 6,305,943	지출 합계	2,764,620	

※ 후원금은 무명으로 입금되었습니다.

※ 탈퇴요청한 회원의 본부 CMS접수가 늦어 출금된 회비, 2만원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반납했습니다.

※ 1월 설 수익사업 유과판매는 아직 판매금이 다 수금되지 않아, 2월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CMS 회원 신청하세요! 사무실에 나오셔서 간단한 양식을 채워주시거나 전화(☎051-556-1799)로 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계좌번호 : 101-2001-6612-01 부산은행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 잔고부족으로 통장에서 미인출된 회비는 다음달에 2회 인출됨을 알려드립니다. 미인출 회비 최대 3개월치 인출됩니다.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

# 참 교 육 을 위 한 전 국 학 부 모 회

## 주요사업

###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대응 활동

#### 교육정책에 학부모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 ◆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서, 성명서 발표, 서명·청원운동
- ◆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사회여론 조성
- ◆ 학교내 돈봉투 없애기 운동
- ◆ 국회·시·도 교육위원회 참관
- ◆ 학교의 부당찬조금 및 잡부금 없애기 운동

###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 학부모 학교참여 운동

- ◆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강좌
- ◆ 학교운영위원회 문의상담
- ◆ 학교운영위원회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 교육강좌·소모임 활동

#### 전국 각지부별 월례 교육강좌를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 ◆ 교육현실의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강좌
- ◆ 소모임활동 : 교육문제연구, 역사탐방, 동화모임, 미술모임, 글쓰기, 풍물 등
- ◆ 부모역할 훈련
- ◆ 예비학부모 교실(초·중등)
- ◆ 지부별 월례교육 강좌

### 출판·홍보활동

#### 학부모의 활동과 목소리 담는 ‘학부모신문’발간

- ◆ 매월 학부모 신문 및 지부 소식지 발간
- ◆ 신입회원, 임원교육자료집 발간

### 회원이 되려면...

우리 아이들이 올곧게 참되게 자라기를 바라는 학부모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비는 월 1만원이상 내시면 됩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느 단체의 재정지원 받음 없이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수익사업만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참교육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합시다

주소 : 부산진구 중앙대로 918-1  
(양정1동 352-2 3층)

문의 : 051)556-1799

<http://hakbumo.or.kr>